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2018년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위원회 8월 중 개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2018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오는 8월 중순경 개최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를 대상으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사도에서 추천된 우수공동체 및 모범등급 상위 20% 이내 공동체를 대상으로 7월 중 현지 확인·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등급 및 최우수우수장려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춘 장관, 통영 한산도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30일 경남 통영시 한산도 일원에서 이뤄진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적인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비롯, 지역 주민, 어업인,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운영 실태조사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를 대상으

로 사업계획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 및 지자체의 사후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및 한국수산업회 자율관리어업 담당자로 조사단을 편성해 6월 중순부터 10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상공동체는 △강원(장사동, 붉은대계선주협회) △경북(장길리, 석병2리) △충남(채서포, 도황, 무창포, 곰섬, 예당내수면) △전북(격포선주협회, 하전, 치도, 구시포) △경기(백미리) △경남(앵강만, 다대, 미더덕영어조합법인) △전남(하장, 호산, 여호, 청석) 등 총 21개소이다.

제14회 자율관리 전국대회 10월 1~2일 여수에서 개최

오는 10월 1~2일 여수에서 열리는 제14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이 6월 5일 전남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수시를 비롯, 한국수산업회, 자율관리어업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장소를 비롯한 전국대회 행사 전반에 관해 협의하고, 개최지 주변시설도 점검했다. 올해 행사에는 공동체 회원 및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지난



전국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계자 업무협약의 모습.

2003년부터 전국의 주요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으며, 2016년 제13회 전국대회 개최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는 자율관리어업 최대의 행사이다.

제2차 해외 우수사례 답사 7월 9~15일 뉴질랜드에서

한국수산업회는 오는 7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의 수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2018년 제2차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뉴질랜드 답사에는 우수공동체 어업인 12명을 비롯,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는 수산자원 관리방안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3차에 걸쳐 실시된다. 3차 연수는 오는 9월 중 중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6월 이사회 개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회장 김호연)는 6월 7일 포항수협 회의실에서 2018년 6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10월 1~2일 여수에서 열리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및 활동부진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 임원진의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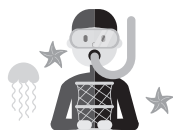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돛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능력 식각,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경남 거제 새우조망공동체 감성돔 종묘방류 및 해양정화 활동 추진



경남 거제 새우조망공동체는 5월 30일 거제시 앞바다에 감성돔 종묘를 방류했다.



감성돔 4만미를 방류하고(사진 왼쪽) 해양정화 활동을 펼쳤다.

경남 거제시 새우조망공동체는 5월 30일 거제시 일운면 예구마을 앞 바다에서 거제시 및 경남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회복을 위한 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했다. 방류한 어종은 감성돔 4만미(1,100만원 상당)이다. 거제 새우조망공동체는 2015년부터 매년 순수 자부담을 활용하여 참돔

및 감성돔 등을 방류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방류사업은 공동체 자부담과 거제시 지원한 예산으로 마련했다. 방류사업 이후에는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초록빛바다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해안가 청소소를 실시하여 폐어구, 폐부자 등 해양쓰레기 약 2톤을 수거해 거제시와 거제시수협을 통해 처리했다.

제천시 금수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 화합의 장 마련



제천 어업인 한마음축제 모습.

제천 어업인의 화합 한마당인 '제6회 제천시 어업인 한마음축제'가 6월 21일 금성면 성내리 선착장에서 열렸다.

제천시 금수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김재호)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한수면의 4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과 낚시터, 양식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체육행사와 장기자랑 등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제천 어업인 한마음축제는 자율관리 어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불법어업 근절과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교육

포항지역 어촌지도자 70여명 대상



경북 포항시는 6월 1일 경북어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포항시 관내 70여명의 어촌지도자협의회 회원

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및 발전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경북도 및 포항시 수산담당 공무원을 비롯, 한국수산회 및 포항지역 담당 컨설턴트가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발표되고, 지역 수산현안에 대한 어업인들의 질의응답도 있었다.

울릉도 관내 어촌지도자 대상



울릉군은 6월 14일 경북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 회의실에서 울릉도 관내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을 비

롯, 12명의 어촌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관리어업 정책교육을 실시했다. 울릉군 해양수산과 팀장, 울릉군수협, 한국수산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자율관리의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육성사업비 관련 내용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어촌지도자들은 울릉도 수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어촌계협의회' 구성 ... 초대회장 김오현씨



전국 어촌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협의체가 금년도 제1차 어촌계장 교육모임에서 구성됐다.

전국 어촌계의 활성화를 주도할 '전국어촌계협의회'가 구성됐다. 5월 25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전국의 조합별 어촌계 협의회장이 모여 어촌계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전국어촌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초대 전국어촌계협의회장에 김오현 인천수협 세어도어촌계

장(66)이 선출됐다. 김 회장은 현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어촌계장협의회는 앞으로 반기마다 회의를 개최해 어촌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가 협의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키로 했다.

공동체 바다정화 활동

남해군 정치망공동체



남해군 정치망자율관리공동체는 5월 19일 경남정치망수협 관계자들과 함께 경남 남해군 물건항 일원에서 바다대청소를 실시했다.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남정치망어업인들의 바다청소에는 80여명이 동참했다.

삼천포 외줄낚시공동체



삼천포 외줄낚시자율관리공동체는 회원을 비롯, 사천시 관내 어업인 등 500여명 참여한 가운데 5월 31일 사천시 삼천포항과 신항만 해안변 일원에서 대대적인 연안정화 활동을 펼쳤다. 육상과 해상에서 펼쳐진 이날 정화활동에서 2,5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통영 양지패류양식공동체



통영 양지패류양식공동체는 6월 11일 도산면 수월 상양지 마을 해변에서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변 정화 활동을 펼쳤다.

한국수산회에서 '어업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수산회에 설치된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경우 한국수산회로 연락해 주시면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소방안을 마련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분쟁조정 비용은 무료입니다.

- 분쟁조정 사례접수 -

- 대 상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및 관련 단체
- 내 용 : 공동체간 분쟁 및 공동체와 미가입어촌계간 분쟁 등
- 문 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02-589-4604)

특별기고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지금 어촌현장에서는 자율관리어업을 잘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활동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정부 지원만 바라는 공동체가 적지 않다. 필자가 그동안 어업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자율관리어업의 성패는 리더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리더 양성교육과 구성원의 의식교육 등 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성공한 공동체에는 대개 마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위원장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위원장이 자주 바뀌는 공동체는 회원간 갈등과 불신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감투라기 보다는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장의 재직기간도 자율관리어업 평가항목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으로 어업인 활동의욕 북돋워야

그동안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수산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산자원은 주인없는 무주물로 먼저 선점하면 된다는 어업인들의 의식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조업과정에서 마구 버린 폐어망, 폐그물 등이 자원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원관리 및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바다를 이용하는 주체인 어업인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에 따라 공동체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 과정에서 이같은 자원관리 및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획능력 삭감 노력(어구수 축소, 망목 확대), 채포체장 제한(알벤 어미고기, 어린고기 재방류), 조업 금지기간 확대(포획 금지기간), 해적생물 구제(불가사리, 해파리), 조



김옥환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
(통영·고성 담당)

업중 인양되는 침전물(폐어망 등) 수거, 어장 청소 등은 국가가 추진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지만 어업인에게 활동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자원관리 및 어장환경 개선 위주로 조정(항목 축소, 배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럴 경우 공동체 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자원도 점차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양 쓰레기 및 해적생물 수매사업 연중 추진토록 예산 필요

이와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조업중 인양 수거된 침적 폐기물(폐어망, 폐그물 등)을 마대에 담아와도 보관할 시설물이 없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다에서 건져올린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보다 악취가 많이 나고 마을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일정량의 폐기물이 쌓이면, 적어도 2~3일만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갖춰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는 이런 당연한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정부는 조업 중 인양되는 폐기물과 불가사리(해파리) 수매사업을 추진하여 자원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나 배정된 사업비가 적어 상반기 중에 집행이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사업은 연중 시행이 되지 않으면 어업인들의 의욕상실로 이어져 올랐던 폐어망, 폐그물을 바다에 되버리기도 하는 만큼 수매사업이 연중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거나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는 공동체는 퇴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반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는 육성사업비 뿐 아니라 행정차원의 당근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체에 대한 교육 강화 차원에서 컨설턴트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마련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전국적 해양쓰레기 수거행사 진행

해수부, 총 2만여명 참여 ... 전국 연안 160곳에서



5월 30일 경남 통영시 한산도 일원에서 이뤄진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모습.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으로 지정해 전국 연안에 대한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는 제23회 바다의 날을 맞아 깨끗한 바다를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지정, 운영했다.

행사 기간 전국 연안 160여 곳에서 해수부 소속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총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행사가 진행됐다.

섬 지역이나 민간인 출입이 어려운 군 작전 지역 등에 대해서도 군부대, 민간 전문 잠수인력 등의 협조를 받아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해수부는 또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해안 정화의 날'로 정해 해양정화 활동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공모전과 캠페인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8만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매년 7~8만톤 가량을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되지 못하고 있으나 남은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유령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경기 서해안 양식 새꼬막, 연내 식탁에 오른다

올해 150톤 생산 전망 ... 경기도내 신소득원 부상



그동안 남해안에서 대부분 생산된 새꼬막이 올 겨울 경기도 서해안에서도 본격적으로 생산될 전망이다.

그동안 남해안에서 대부분 생산된 제철 별미 새꼬막이 올 겨울 경기도 서해안에서도 본격적으로 생산될 전망이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그동안 남해안에서 90%가량 생산되던 새꼬막을 경기도 서해안에서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어업인들에게 보급했다"며 "올 11월께는 도내에서 본격적으로 새꼬막이 생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새꼬막 양식을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내 서해안 갯벌에서 양식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전남 여수 여자만에서 채취한 길이 2.2cm, 무게 2.8g의 어린 새꼬막 4.4톤을 화성

백미리와 매항2리, 안산 행남곡 등 서해안 갯벌 3곳에 뿌려 양식 경제성을 연구했다.

5~11월 양식 결과 새꼬막의 무게가 9.8g으로 3.5배 늘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도내 서해안 새꼬막 양식기술을 어민들에게 보급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식에 들어갔다.

올해 화성시 갯벌에 39톤의 어린 새꼬막을 살포했으며,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오는 11월경에는 150톤 이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서해안 갯벌의 새꼬막 양식 가능 면적은 300ha가량으로, 연간 최대 2,000톤 정도의 새꼬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소는 추산했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인천에서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



올해로 23회째 맞는 바다의 날 기념식이 5월 31일 인천시 중구 인천 내항 8부두에서 개최됐다. ‘함께 가꿔갈 바다, 함께 누려갈 바다’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해경의장대의 축하 공연 등 식전 행사 이후 바다헌장 낭독, 기념사,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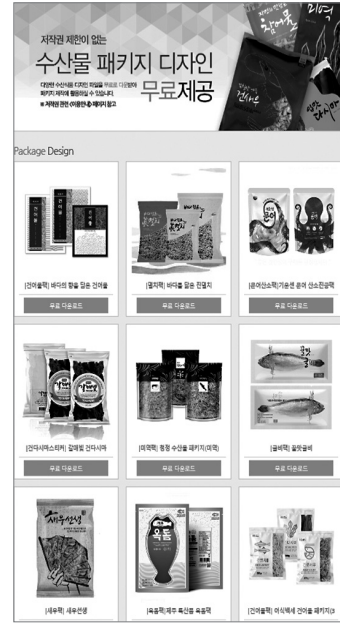
여수수협은 6월 8일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여수관내 어업지도자 및 자율관리어업 어업인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어업인들의 숙원 사업이던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준공

식을 거행했다. 여수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사업비 79억여 원이 투입돼 지상 5층, 연면적 4,589㎡ 규모로 동결 52톤, 냉장 4,454톤, 저빙 777톤의 시설용량을 갖췄다.

수산물 포장지 디자인 24종 새로 선보여

한국수산회,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한국수산회는 수산물의 고급스런 포장·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수산물 포장지 디자인뱅크’에 최근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디자인 뱅크에는 멸치, 미역, 다시마, 새우, 김, 참조기, 굴비,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의 포장 디자인이 품목별 2~3종씩 총 114종 등 록돼 있었으나 최근 새로운 품종의 디자인 24종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디자인은 어업인들로



부터 희망 디자인을 요청받아 제작한 것으로 미역귀, 건홍합, 과메기, 전복장 등 그동안 보편화되지 않은 품종이 다수 포함됐다. 디자인 뱅크의 홈페이지는 ‘피쉬디자인(www.fishdesign.co.kr)’이다. 디자인에 익숙치 않은 어가에서는 이곳에 접속하여 필요한 디자인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아 포장지 제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안·무안 4곳에 낙지목장 34ha 조성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자원량 회복위해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해마다 줄어드는 낙지 자원량 회복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신안·무안 4곳에 낙지 목장 34ha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낙지목장 사업은 갯벌이 발달한 마을 어장에 번식장을 조성해 육상 수조에서 교점을 마친 암컷을 방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어업인들은 자율적으로 자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전남에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천, 무안, 신안, 함평 12곳에 67ha 규모 낙지 목장이 조성됐다. 지난해 자원 조사 결과 낙지 목장에서는 서식량이 2.3~5.3배 늘었고, 생산량도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설명했다.

공동체 탐방 / 부산 미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해운대의 새벽을 깨우는 미포항 ... 관광특구 활용한 새벽시장 브랜드화에 역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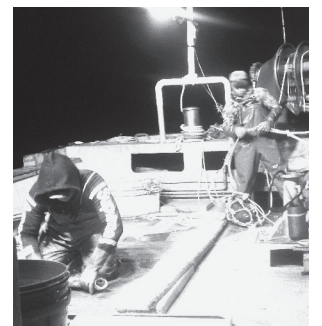
김희권 미포공동체 위원장.



미포항에서 바라본 해운대의 고층아파트 모습.



미포항 새벽시장 모습.



새벽 3시 출항해 조업중인 자망어선.

새벽 3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미포항을 벗어나 앞다투어 출어하는 어선들. 이들은 인근 어장에서 3시간쯤 조업하고, 해운대 백사장에 아침 운동하는 사람이 보일 무렵 미포항으로 돌아와 잡은 고기를 풀어 놓는다. 자망과 통발에서 잡은 넙치와 문어, 도다리, 붕장어 등 다양한 어종의 펄떡이는 활어와 이를 구매하기 위한 관광객, 인근 상인들이 어우러져 난전(亂塵)이 펼쳐지면서... 도심 속의 어촌, 미포항에 아침이 밝아온다. 해운대 바닷가 동쪽 끝, 작은 포구 마을 미포에는 연안 자망·통발어선 50척 이외에도 4명의 해녀들이 44ha의 공동어장에서 소라,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하며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참여이후 가장 큰 변화는 어업인들의 의식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조업중 올라오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치어도 잡히는대로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도 논밭처럼 가꿔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4년여 전 어촌계장을 맡으며 자원고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촌계원들을 설득해 공동체를 결성한 김희권(58) 위원장은 자율관리어업 참여이후 통발과 자망의 어구 수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폐어구 반납장부를 만들어 어구를 바다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유

도했다. 회원들의 협조로 어선어업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마을어장 관리는 여전히 답답한 실정이다. 그동안 전복 치패 방류 등 자원조성으로 마을어장내 자원이 많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채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원조성도 좋지만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지요?” 이곳 마을어장은 수심이 깊고, 채취여건이 좋지 않아 연로한 해녀들이 작업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김 위원장은 “마을어장 관리선을 지정해 주면 공동체 소득을 크게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한편 미포공동체는 소득증대 방안

으로 새벽시장을 관광 브랜드화 하는데 힘을 모아나기로 했다. 지금의 새벽시장은 수십년을 이어져 왔지만 양성화되지 못한데다 회를 썰어파는 곳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단속대상이 되고 있어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해운대 관광특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미포공동체에서는 미포항 어항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새벽시장을 활성화하고, 노후화된 미포 활어판매장도 이곳에 신축함으로써 부산의 새로운 명물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합심 노력해 가고 있다.